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교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신령한 예배가 제일 우선입니다!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2006년!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복음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학교에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주변 전도와 각종 전도 훈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도 변함없이 선교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파송될 팀 구성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선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예배가 소홀해지는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각종 훈련과 모임에 나서 늦게 끝나 예배에 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대 목표 중 첫 번째는 신령한 예배입니다(요 4:24).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보혈의 주님을 만난 참 신자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라면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땀이라고 믿는 모든 일은 단지 나를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요일 5:20).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예배가 모든 일에 우선되어야 합니다(벧전 2:5). 적어도 모든 예배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옷차림과 휴대폰 관리에도 유의해 주십시오. 어떠한 것도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요 4:23).

그리스도인의 가정 (설교문)

설날 가정예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기초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골 3:1).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골 3:8,9).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골 3:10).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이다. 그리스도인의 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정은 어떠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마냥 열심히 살고만 있지 않는가? 옛 것을 버리고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감사가 살아 있어야 한다(골 3:15,17).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출발점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시작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나리 이 말씀을 단순히 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실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아내들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전 7:10). 대신에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엡 5:22).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남편이다. 왜냐하면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한 몸이 된 것은 기적이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편에 대해 섭섭할 때도 있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충성되어 남편을 섬겨야

-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 찬 송 404장 다 같 이
- ◆ 말씀봉독 골로새서 3:18-21 인 도 자
- ◆ 말씀선보 그리스도인의 가정 인 도 자
- ◆ 통성기도 다 같 이
- ◆ 찬 송 305장 다 같 이
- ◆ 주기도문 다 같 이

한다(딤후 3:11). 창성의 본질은 희생과 사랑이다. 따라서 내가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주는 것 자체로 기뻐해야 한다. “...젊은 여자들이 고운화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딤후 2:4). 아내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벧전 3:1).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혀 하지 말라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가장장적인 권위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연의 권위로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 삼길”(엡 5:25)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다. 남편은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유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가정에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아내가 나보다 못하다라고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행할 때 기도에 막힘이 없다(벧전 3:7). 남편은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 심지어 부모보다 아내에게 더 잘 해야 한다(창 2:24). 십자가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라(창 5:18).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막 7:10). 그러나 이 말씀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 부모를 섬기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주 안에서”(엡 6:1)이다.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일 뿐이다.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막 1:8; 10:1).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모든 것의 헛됨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친다(전 12:1). 병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윤리 안에서가 아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라

부모들은 자신을 잘 섬길 것을 자녀에게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이처럼 말씀이 살아 있는 가정에는 기쁨이 넘친다(딤후 4:7,11).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은총의 사람이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오직 위엣 것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서로 사랑방기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충성해야 한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은총은 넘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도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병사에 감사하자!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자. “죄인 중에 과수 열매도 불구하고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자.

(김성관 위임목사)

REAL CHRISTIANS ALWAYS TRIUMPH

⁽¹⁴⁾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His triumph in Christ, and manifests through us the sweet aroma of the knowledge of Him in every place. ⁽¹⁵⁾ For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¹⁶⁾ to the one an aroma from death to death, to the other an aroma from life to life. And who is adequate for these things? ⁽¹⁷⁾ For we are not like many, peddling the word of God, but as from sincerity, but as from God, we speak in Christ in the sight of God.

(2 Corinthians 2:14-17)

Today's Bible message begins,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 in Christ, and manifests through us the sweet aroma of the knowledge of Him in every place"(v. 14). Do you always triumph or always lose? Real Christians always triumph. I am not talking about sometimes or even often, but always! Real Christians always have victory in Christ. This truth comes from a spiritual viewpoint, not a worldly outlook. What is the spiritual perspective?

Christian life is one of conflict. Many believers think that triumph only comes at death, but everyday they must struggle. Victory suggests battle, and battle means fighting. In order to triumph, you have to fight—you cannot ignore the battle. From conversion to death, Christians must suffer persecution. Paul fought all the time. He endured terrible conflicts. Even Peter said, "Be of sober spirit, be on the alert.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1 Pet. 5:8). Many Christians confess God's blessings upon them concerning worldly successes, and praise Him for their good fortune, but they do not experience spiritual battles. 2 Timothy 2:3 says, "Suffer hardship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The believer's enemies, demonic hosts of Satan, are always assembled for mortal combat. Your Lord and Commander, Jesus Christ, bids you go! He has given you the truth, the gospel of peace, the sword of the Spirit, the shield of faith,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Eph. 6:14-17). He wants you to fight the good fight.

Jesus Christ gives you victory for every battle. You will always triumph in this life with Him, "But in all these things we overwhelmingly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Rom. 8:37). You cannot win by yourself. Victory comes only through Jesus Christ. You must trust and rely on Him for everything. Jesus says, "Behold,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will injure you"(Lk. 10:19). Do you believe it? John further explains, "You are from God, little children,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he who is in the world"(1 Jn. 4:4). Paul also says,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1 Cor. 15:57). If you stick with Jesus Christ, and not trust in yourself, you will always have victory. "Who is the one who overcomes the world, but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1 Jn. 5:5)? Your faith in Jesus overcomes the world. If you do

not believe, then that is a problem. If your hope is in the world, knowledge, or even yourself, then you are lost. You will always ask and wonder why God let this or that happen to you. If you believe, He will always lead you to win. You will always experience triumph in life.

Victory does not come from your power. God causes you to triumph. You are no match for your enemy. Daniel entered and exited the lions den. His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l into a fiery furnace and walked out without even a hair on their heads singed. Nebuchadnezzar witnessed, "Look! I see four men loosed and walking about in the midst of the fire without harm, and the appearance of the fourth is like a son of the gods"(Dan. 3:25)! There is always safety in Christ. Colossians 3:3 says,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The Lord of hosts says,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Zech. 4:6). The wonderful Holy Spirit empowers you.

The reason for your victory is so that you can manifest Christ. Paul says, "For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to the one an aroma from death to death, to the other an aroma from life to life. And who is adequate for these things? For we are not like many, peddling the word of God, but as from sincerity, but as from God, we speak in Christ in the sight of God"(vv. 15-17). It is not by your authority or power to show others the gospel. Many of today's Christian leaders think they are great. They show up on stage like actors seeking glory. 2 Corinthians 4:7 says,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so that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power will be of God and not from ourselves." This power belongs to God, not to any leader within the church. Jesus tells u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Jn. 15:5). Too many Christians do ministry work on their own, sabotaging the gospel message.

My dear friend, the Christian life consists of many battles.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Heb. 4:16). As a true believer, there is no failing. With just a little faith, you can walk on water and move mountains, but you do not really believe it. Faith is victory! If you understand, you can answer this question,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Rom. 8:31)? The answer is amazing! 

다움 주일 설교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⁴⁴“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범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⁴⁵“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⁴⁶“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범세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범세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⁴⁷“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14-17)



김성완 목사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범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14절).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실패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합니다. 가끔 혹은 자주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진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관점입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 중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승리한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 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승리는 전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쟁이란 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를 얻으려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회개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참아 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항상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벧전 5: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 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행운을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모데후서 2:3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라” 신자들의 대적, 사단의 군사들은 언제든지 목숨을 걸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리, 평화의 복음,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라는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엡 6:14-17). 주님은 여러분이 전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투에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 이 말씀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이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도 또 죄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 바울 또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7). 만약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다면 승리는 항상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ぞ”(요일 5:5).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상이나 지식 혹은 자기 자

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와 나에게 이룬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사단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격렬한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때 느부갓네살 왕은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제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단 3:25).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골로새서 3:3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 4:6).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범세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범세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15-17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위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독차지하며 배우처럼 무대에서 돋보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7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합해 나아갈 것임이라”(히 4:16). 진정으로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자세만한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

봉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 된 **충현교회를** 세우고 5대 목표를 제시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여러 위원회와 더불어 봉사위원회를 세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위원회가 봉사를 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한 지체이며 서로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고전 12:14-27). 아무리 약한 지체라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봉사일지라도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봉사입니다. 충현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의 목적은 교회를 이루어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로 함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엢 4:12). 봉사위원회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명초(장로, 봉사위원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

봉사위원회의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봉사를 위해서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봉사부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위해 오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부서입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호 재단부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국제적인 재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집을 잃고 부족한 양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3,4)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제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서 생활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부서입니다. 구제부의 봉사는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부서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충현복지관은 정신박약자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

연로하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전 성도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십일조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십일조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은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어나서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금을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선교의 작은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미화 봉사와 달란트 봉사(통산 봉사), 주일 자원봉사 팀으로 구분됩니다. 미화 봉사는 19팀(교구별 팀)으로 나누어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실시합니다. 분당 및 교회학교 예배실과 부속 시설물, 각 건물 지하 주차장, 교회 내 화장간 및 충현동산, 충현기도원과 주변 공간들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봉사는 교회 내의 행정, 전기, 기계, 음향, 영상, 영신, 조정, 조리 등에 자신이 배운 기술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일 봉사팀은 주일에 분당 102호에 오시면 누구나 봉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진 은사는 먼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봉사

봉사위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서입니다(마 16:24).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며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봉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11).

이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하리오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이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하리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그 은혜, 말씀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베풀어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생각할 때 눈물로 감사드리지요. 사람이 무엇이란 관대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란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제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복 중의 복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루 이틀, 한 해를 살수록 죄가 더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랑의 몸에서 나를 건지내랴"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 경험, 생각대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 교육 문제, 남편 비교하기, 돈에 대한 관념, 세상에 대한 집착, 인간 관계 등등.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천부병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고틀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곧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월선(집사, 3교구)

내 일꾼이 주를 찬양



찬 2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가 평생토록 마음속에 담아두고 드리는 찬송이지 만 지금도 이 찬송을 드릴 때면 아직도 이 가슴까지 나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찬송만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생물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네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라" 찬송한 십자가에서 흘러신 은혜로 우리는 값없어도 모두 나와서 죄만 회개하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서하시니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이긴 곧 용서 받으라"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한 강도는 주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총은 저 자신을 더욱 은혜 속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의 죄사신 하나님 어인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원 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 거문고 새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이도 피흘리사 날 구원하소서" 온 인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다가 수 없이 지어 다시 일어나 그 언덕을 오르신 어인양, 우리는 그 주님과 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같이 모여 금 거문고 새 노래를 부를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을仰望합니다. 흠없이 있는 한 줄금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 것들 다짐해 봅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이도 피흘리사 날 구원하소서"

이월주(권사, 호신나 찬양대)

먼저 천국에 갑니다!

지난 16일 중등 2부 팀을 시작으로 2006년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내일(23일) 출발하는 많은 팀 가운데 고등부의 한 팀에서 남긴 가장 유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먼저 천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철민)
-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길 계속 기도할 게요. (이은미)
- 선교를 갈 때 내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것이기에 목숨 하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유재우)
-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써 주세요. (윤혜리)
- 충현 동산에 묻어 주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백민아, 아버지 곁으로 가다” 인생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백민아)
-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복음에 빛진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매우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손인순 교사)
- 저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막과 장기는 기증하고 시체는 화장해서 고향 앞바다에 뿌려 주세요. (장작 교사)
-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할지라도 맡겨진 팀원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숙자 교사, 팀장)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6일(월) ~ 1월 21일(토)	중등2부	윤병식
1월 16일(월) ~ 1월 21일(토)	중등2부	박용기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김종훈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엄복섭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박상대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박종율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윤해균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중등3부	이재호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김숙자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박영섭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이보신
1월 23일(월) ~ 1월 28일(토)	고등부	최용길
1월 23일(월) ~ 1월 31일(화)	에바다	주순희
1월 25일(수) ~ 1월 31일(화)	청년1부	김을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선교지에 도착한 첫 날 오후에는 주변 지역을 다니며 정탐 사역을 하였고 둘째 날부터 노방 전도와 축조 전도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 동혼으로 들어갈수록 형편이 어려워 소와 돼지가 셋은 물에서 사람들도 함께 씻으며 살고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역 중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밤 사이에만 비가 내려 오히려 좋은 날씨 속에서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이통 중에는 차에서 쉬지 않고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사역지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매일매일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 마을에서 만난 여아가이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였고 찬양도 잘 따라하였다. 그 아이는 우리가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따라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어린 생명이 그 마을은 물론 선교지 전체의 영적 복음화에 큰 일꾼으로 쓰이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혜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합과 같으니라”(롬 10:13-15).

최승민(집사, 1교구)

복음에 빛진 자이기에...

- ◆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인간적인 여러 계획과 근심, 걱정들로 선했 결정하지 못 했던 단기 선교인데, 하나님의 인도로 선교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복음 전하는 기쁨과 열정을 허락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 자신이 높아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 다. (이하경)
- ◆ 사역 기간 중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기도로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복 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보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안 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정현)
- ◆ 애초에 선교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와서 이런 느낌은 없어지고 선교 오게 된 것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면서 그 영혼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자를 쫓긴 경우가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고 많이 슬펐습니 다. 하나님 이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정현)
- ◆ 재대로 준비가 되지 못 했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언어를 충분히 익혔고 찬양을 많이 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기도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확신 없던 사역이 기도 에 힘입어 확신에 가득 찬 사역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었고, 하루하루 매일 같 이 온 몸이 흠뻑 젖을 만큼 많은 믿음을 흘려야 했고 더운 날씨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창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경)
- ◆ 선교라는 것은 나와의 가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음을 듣고서야 비로소 내가 복음에 빛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선교를 가야 했지만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교 훈련과 모임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윤화정)

(대학부)

복음으로 충만한 십자가의 종인

예수님이 '아아' 했겠다!



성령님께서 며칠 전부터 하강이를 통해서 성경 학교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 나셨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예수님이 많이 아프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아아 했겠다. 엄마!" 하며 울면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성경학교에 꼭 데리고 가야 한다며 때를 썼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또 같아! 성경학교에!" 내일 성경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크게 부르다가 가사를 잊었다며 내일 꼭 가서 다시 배우겠다며 시계의 알람을 맞추는 아이를 보며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찬양 부르기 좋아하는 하강이가 앞으로 자라면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일평생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유은경 (전하경 엄마, 유치부)

무릎을 꿇으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조별 공부와 조별 친교 때에는 서먹서먹했던 조 친구들이 서로를 소개하면서 친해졌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중간중간 출출할 때쯤 피자과 햄버거도 생각이 났지만 집사님들께서 손수 끓여 주신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선교 간증 시간에는 외국인들께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 어린 아이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말할 때에는 행복해 보였고 진실한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선교 신문을 만들 때와 공동체 훈련 때에는 제가 가야 할 선교지에 대해 아는 게기가 되어 더 열심히 하였고, 공동체 시간에는 조 친구들과 물품물품 채서 했기 때문에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워 부흥회에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정말 슬픔을 못 설 정도로 눈물과 땀물이 났고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내려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겸손히 무릎을 꿇으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셨습니다.

이광애(중등1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련회에 오기 전까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몸만 교회에 나온 뿐 예배 시간에 떠돌고 기도 시간에도 잠깐이며 신앙 생활을 한 것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모가 예쁘든 안 예쁘든, 잘 생겼든 못 생겼든 모두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어리지만 주님처럼 남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싫든 좋든 똑같이 따뜻하게 감싸 주며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교회에 잘 다니고 자기의 믿음을 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만을 따르며 기도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정민(중등2부)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성경학교 첫날에는 찬양과 말씀을 듣고 십자가 종인 전서를 하고 인형극을 보았다. 멀렁이가 버들이를 전도하는데 전도 중에 초콜릿을 훔쳐 먹었다. 그날 밤 멀렁이의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손으로는 천국을 열 수 없다며 손을 잘라 버렸다. 깜짝 놀란 멀렁이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다. 나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날, 선생님께서 갑자기 누구를 전도하고 싶냐고 물으셨다. 나는 "아빠요!"라고 대답했다. 엄마와 오빠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빠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꼭 제 기도 들어주세요!"

강효승(유년부)

예수님과 친해졌어요!

나는 이제까지 성경학교라는 것은 즐겁게 교회에서 놀다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부흥회를 통해서 눈물과 함께 회개를 함으로 성경학교가 노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둘째 날에는 두 명의 친구를 데려 왔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친구가 교회를 계속 나오겠다고 해서 많이 기뻐했다. 이제 바로 전도의 기쁨이 아닐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적지만 큰 것을 배운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 친구를 전도해서 가리리, 동네로, 우리 나라로,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 십자가를 전하는 종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임희진(소년부)



교회의 탐방 95 선교위원회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 열풍

주일 오후, 선교관 4층에는 선교위원회 사무실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끌시끌 잠시도 쉴 틈 없이 분주히 뛰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사 분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교주일(29일)을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 열풍의 중심지인 장 복음의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2005년 단기 선교를 돌아보면?

아나남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달라졌으며,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비전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전종필 장로, 위원장)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뿐입니다. 최인인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펼칠까지 나아가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장영민 목사, 지도)

충현의 전 성도들이 더욱 십자가로 하나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떤 학생들에서부터 언론인까지 함께 하였던 지배적인 선교였습니다. (임무천 장로, 서기)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김재식 집사, 진행부)

2006년 영적으로 준비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교에 소극적인 분들이 계신데 경건하고 믿음으로 선교에 지원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함용철 장로, 지원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철저한 십자가 의지와 부단스런 화와 미로와 위험에서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안석연 장로, 훈련부)

작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선교를 위한 십자가에서 간혹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탈락을 위한 십자가 아니라 더욱 영적으로 준비시키려는 과정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민 장로, 관리부)

십사 과정에서 탈락 이유는 모두 저희들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십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장영민 목사)

2006년, 단기 선교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대국 간의 기도하며 주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임무천 장로)

금년에는 선교지로서 전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더욱 복음에 편하게 중직할 수 있도록 지교회들 세워서 복음이 뿌려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 더불어 의로를 통한 복음 전도도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최인석



집사, 의료선교부

현진인 지역자들을 통한 현지 선교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현지인들이 자신의 고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할 것입니다. (최윤석 장로, 지원부)

작년에는 선교를 위한 예산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열심인 선교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선교를 위해서 더욱 지원할 것이며 특히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김근교 장로, 회계)

모든 팀은 20회 이상의 팀원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석연 장로)

CMIC 훈련을 더욱 전문화시켰으며 수련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영성 훈련과 직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올해 첫 1일 수련회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이성식 집사, 훈련부)

앞으로 3월 일, 6월 일일에 일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식 집사)

2006년 단기 선교의 강조점은?

아무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말 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기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함용철 장로)

단순히 참가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니 받은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종필 장로)

철저한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관련된 점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여부도 평가됩니다. 2회 이상,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통해 현재 연가나 기존에 먼저 영연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식 집사)

선교의 원동력인 선교 기도와는?

작년에도 선교지도회를 통한 기도와 능력을 체험했기에 올해도 더욱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장영민 목사)

선교에 관련된 분만 선교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현의 성도라면 반드시 선교기도회에 오셔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석연 장로)

주일 오후 4시부터 배시 40분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전까지 교회들 배회하지 마고 갈릴리온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근교 장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2006년에는 단기 선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온전케 준비하십시오! (전종필 장로)

한 사람이라도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펼칠까지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장영민 목사)

올해는 교구든 봉사부서든 먼저 준비 되는 대로 선교에 갈 수 있습니다. (김근교 장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저희들이 먼저 자기를 부린다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무천 장로)

충현의 성도라면 이미 교회의 선교 방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믿음으로 이 모든 방침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선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용철 장로)

선교를 위한 모든 훈련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후의 과정입니다. (이성식 집사)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가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일에 소임하는 충현교회 성도라는 것이 기쁩니다. (최인석 집사)

가끔 선교위원회의 문턱이 높다는 오해를 받는데 제대로 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팀의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머리 저지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낮 낮든 새벽이든 선교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김재식 집사)

다음 주일이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장영민 장로)

영적으로 철저! 영적으로 온전! 기도와 말씀! 선교위원회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보혈의 주님을 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을 살리기 위한 목자의 성정이 그들의 심상에 있었습니다. 예수와 온전히 남아 있는 손과 발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주(29일), 선교주일! 단순히 물길만 드러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의 열풍을 위해서! (편지실)

새 가 록 · 읍 · 환 · 영 · 압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3	신종욱	8	청년1부	218	전정호	2	청년1부	권정환2	233	이소빈	19	청년1부	김윤경1	248	한정재	19	고등부	이재현12	263	남지민	19	대학부	백지현10		
204	이성진	19	중등3부	권재호	219	최정인	1	대학부	234	홍정민	19	청년1부	신민정1	249	박미애	19	고등부	신민정1	264	황희숙	19	대학부	이진원11		
205	최다영	19	중등3부	박성준1	220	최정인	1	고등부	235	김윤준	13	청년1부	250	이호재	19	대학부	이윤경10	265	이무희	19	청년1부	이민원11			
206	변성일	19	고등부	최현성10	221	최하영	1	중등부	236	최하영	19	청년1부	권영환2	251	고일수	19	고등부	김재현10	266	계은호	8	청년3부	계서민10		
207	최호산	1	청년1부	최호원19	222	이종우	5	청년1부	이희하*	237	지윤정	19	청년1부	최한19	252	김성수	19	고등부	정영환1	267	오세진	19	청년1부	홍철환11	
208	문영애	1	청년1부	최호원19	223	김현진	19	고등부	최재현15	238	조인재	19	중등3부	김재현3	253	정민준	1	청년2부	전승기11	268	신민정	19	대학부	박재현10	
209	최효섭	1	대학부	최호원19	224	송준영	19	고등부	김홍기17	239	송슬비	19	대학부	박민희18	254	송준식	19	대학부	이동훈10	269	황기수	19	청년1부	김종환10	
210	김지숙	4	청년1부	225	김나래	19	중등부	이민준14	240	백승민	1	대학부	이민준11	255	이서연	19	대학부	김진원18	270	김성철	19	청년1부	김영환15		
211	김진재	4	고등부	226	성종우	12	중등부	송창환11	241	송이영	19	고등부	256	김관조	19	청년1부	271	이아연	19	중등부	송민준10				
212	김진희	19	대학부	황윤영19	227	왕미리	19	청년1부	242	고혜원	19	청년1부	257	나은성	19	중등3부	이재현11	272	이민철	6	청년1부	남재현10			
213	정찬수	19	청년1부	조연희19	228	전정호	19	대학부	김성수18	243	권준호	19	대학부	조준환10	258	조지현	19	청년1부	박지현19	273	양승훈	19	대학부	송재현11	
214	김지현	19	고등부	신보현19	229	김영철	19	청년1부	244	김진현	15	고등부	김지현19	259	박용성	19	중등3부	이민철16	274	유승재	4	대학부	이원철11		
215	이 승	19	중등3부	이승미16	230	김정환	7	청년1부	정성환7	245	이진원	19	고등부	박지현19	260	황희숙	19	대학부	김지현16	275	규진성	19	대학부	황정환10	
216	황인숙	8	소장부	박준근10	231	김현진	19	대학부	정성민10	246	이영수	19	고등부	고근석10	261	이현철	19	대학부	신상우14						
217	최재현	19	청년1부	최근준10	232	정병봉	6	청년2부	정근관17	247	김경아	19	고등부	임지아10	262	박은진	19	대학부	남은희10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지 2053 새가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남제주도부 전도회장 지부별 월례회
일시: 22일(오늘) 15:30
장소: 1지구-제1교육관 501호(14교구)
2지구-제1교육관 601호(59교구)
3지구-제1교육관 702호(10-14교구)
4지구-제1교육관 601호 회의실(15-18교구)

2.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시: 22일(오늘) 15:00
장소: 갈릴리움

3. 권사회 전체 임원회

일시: 25일(수) 1부 예배후(12:10)
장소: 갈릴리움

별 세

1. 원음회 성도 (최후원 집사의 모친, 이현국 성도의 장모, 5교구 개조5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2. 이해수 성도 (청남이 성도의 남편, 17교구 신봉수장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3. 강용순 은퇴권사 (10교구 강위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 전도회 및 교육위원회 회계감사

전도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와 1,2,3교육위원회 소속 교육 부서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시산표 1부(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대상 기간: 2005년 7월~12월

구 분	각 전도회	1,2,3교육위원회
장 소	전도위원회실(교6층)	감사위원회실(교503호)
시 간	1. 1(주일) ~ 1. 29(주일)	1. 8(주일) ~ 2. 5(주일)

◆ 음영실 카메라 봉사자 모집

자 격: 만19세 이상 남·여 교인 문 의: 음영실 (내선 224번)

교회직원 모집

- 1.모집 부문 겸비직 (역간 명)
- 2.자 격 세례교인 (만55세 이하)
- 3.필요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달회장 추천서 (타교인)
- 4.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02-552-8200(403)

충현어린이집 교사 모집

- 1.모집부문 어린이집 교사로 및 보조교사
- 2.자 격 세례교인 이상, 정규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전공자
- 3.문 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 어린이집 ☎ 554-7054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설교자/기도자	류병희/김은호	김영훈/권영주	안창익/정태동	나광영/박광식	정진호/유기명	김용덕/김정희	정현민/이복순

예배담당 안내 (1/25-1/29)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1/25	수요 I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조산나 찬양대)	양재호	황정희	자기부인과 육도 (막 4:1-9) 조규호 목사
1/25	수요 II	오 신실하신 주 (실로암 찬양대)	이희식	김성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골 3:15-17) 최홍철 목사
1/27	금요일	바이올린 김유정 / 태너 김현실 / 선교중앙단	여국근		양재호 목사
1/29	주일 I	(예배 전 찬양)	김성훈	전종필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교후 2:14-17) 황진실 목사
1/29	주일 II	속죄하신 주께를 의 / 스프라노 김희숙 (임마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익현	김장경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교후 2:14-17) 김영문 목사
1/29	주일 III	주 예수 넓은 사랑 의 / 찬양위원회 3중창	류병희	전학대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교후 2:14-17) 김성관 목사
1/29	주일 IV	왕이온 아들을 위하여 의 / 알토 이상민 (합창부가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종대	장철환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교후 2:14-17) 최성규 목사
1/29	주일 V	우리가 지은 나그네 피아도 의 / 스프라노 최서현 (예쁜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광수	최지훈	항상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교후 2:14-17) 김성관 목사
1/29	주일장막	선교위원회 / 임마누엘 찬양대	정용선	유종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골 1:16-17) 정현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수요일집회	오후 10:30	금요일집회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00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우리말로 오전 11시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망 부	오후 12:15	관 릐 리 홀
사 망 부	오전 11:00	복자관 지하홀
예배다부	오전 9:00(학인) (학) 오전 8:30~8:40 (보) 오전 6:30~9:00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오후 12:15	배 다 나 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나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전선장제언교부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전선교부	오전 11:00	아 변 홀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기독교 남연수	김은호 교과목 김종구 충현기독교	노광현 당회서기 최무길 12교구	이병학 당회서기 이창호 사목교육부	이 훈 예배전담 차산득 12교구	정현민 선교전담 여국근 5교구	박인기 해도부 12교구	류병희 12교구	김영훈 3교구
김장남 기독교	이종석 기독교	임무현 10교구	이갑재 10교구	전종필 충현기독교	김진환 14교구	장 훈 사목교육부	정현민 12교구	김용덕 3교구
전종필 선교전담	이정우 선교전담	김단용 선교전담	한승준 선교전담	김성수 충현기독교	이희식 충현기독교	정종철 충현기독교	정현민 12교구	정용선 충현기독교
김환기 제2교육관	원용준 12교구	이형수 선교전담	안동현 충현기독교	황의만 충현기독교	양재호 충현기독교	이성진 충현기독교	조규호 충현기독교	최성규 충현기독교
김구현 4교구	최준덕 충현기독교	이백인 충현기독교	박다영 충현기독교	이태식 충현기독교	이재환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김준희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정태동 충현기독교	박용규 충현기독교	권명호 충현기독교	조종환 충현기독교	배준식 충현기독교	박철규 충현기독교	신동자 충현기독교	한영준 충현기독교	김인식 충현기독교
김영달 충현기독교	이성호 충현기독교	최희준 충현기독교	노영환 충현기독교	박철규 충현기독교	김은국 충현기독교	이국경 충현기독교	안승준 충현기독교	강덕필 충현기독교
정정진 충현기독교	신상수 충현기독교	고재승 충현기독교	강철형 충현기독교	김영준 충현기독교	이성진 충현기독교	김준희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이달용 충현기독교	장철환 충현기독교	김승만 충현기독교	함철주 충현기독교	윤성민 충현기독교	최준철 충현기독교	전종철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정진호 충현기독교	안석현 충현기독교	김연근 충현기독교	김장국 충현기독교	김종진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이복순 충현기독교	류병희 충현기독교	한성민 충현기독교
임창식 충현기독교	김은호 충현기독교	김장국 충현기독교	전근배 충현기독교	서영식 충현기독교	주재환 충현기독교	김영미 충현기독교	이복순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김영관 충현기독교	최희준 충현기독교	신선길 충현기독교	유상태 충현기독교	박상대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 부목사

이종대 2교구	정현민 선교전담	박인기 해도부	류병희 12교구	김영훈 3교구
여국근 5교구	안정훈 충현기독교	나광영 충현기독교	정현민 12교구	김용덕 3교구
김장남 10교구	위건환 충현기독교	장 훈 충현기독교	정현민 12교구	김정훈 충현기독교
이희식 충현기독교	최종철 충현기독교	정종철 충현기독교	정현민 12교구	정용선 충현기독교
양재호 충현기독교	이성진 충현기독교	조규호 충현기독교	최성규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이재환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김준희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 어전도사

신동자 1교구	윤성민 충현기독교	한영준 충현기독교	김인식 충현기독교	홍순애 충현기독교
이국경 충현기독교	안승준 충현기독교	강덕필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최준철 충현기독교	전종철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이정훈 충현기독교
김정현 충현기독교	이복순 충현기독교	류병희 충현기독교	한성민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김영미 충현기독교	이복순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김정훈 충현기독교

■ 찬양감독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